

## 춘원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 인식

### The Review of Choonwon, Lee Kwang-Soo's Perspective about Improvements of House living in Modern Age

박 선 희\*  
Park Sun-Hee

#### Abstract

Choonwon, Lee Kwang-Soo was a literary man and activist for educational movement in modern age of Korea. This research was to review his arguments about improvement of house living. The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he asked Korean people to establish solid identity of living. Second, he placed great emphasis on building hygiene facilities and bathroom. Third, he argued that the space within a household need to be divided in accordance with function. Finally he suggested Korean people to make home environment beautiful and convenient.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광수에 대한 수식어 중 항상 따라 다니는 것 중의 하나가 계몽주의 문학, 또는 계몽 사상가이다. 논문이나 수필은 말할 것도 없고 문학 작품의 많은 내용에 계몽 사상이 짙게 깔려 있는 때문일 것이다. 이광수는 문학가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한 조선의 탁월한 지식인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재론의 필요가 없는 인물이다(김광역, 1998). 그러나 1922년 발표한 [민족개조론]을 통하여 일부로부터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그러나 당대의 다른 지식인들과 달리 이광수는 당시의 민족성과 생활 태도의 개조에 초점을 둔 비정치적(김광역, 1998)인 것의 현실비판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광수 이전에는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같이 주로 외국에 다녀 온 기행문으로서 그들의 주거 건축에 대한 외적인 소개로 그쳤을 뿐이었다. 그래서 丘仁煥(1983)은 이광수를 가리켜 한말에 출발한

근대 문학의 동반자로 근 반세기를 파란 속에서 활동한 文士요, 論客이며 산 증인이며 조선의 생활 윤리와 관습을 과감히 타파하려는 변혁성의 사상가라고 지적하였다. 김광역도 일제시대의 토착 지식인들의 민족문화론이 식민지 문화 연구의 이념적 지향과 방법론에 비하여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식민지 정책의 동조자로 보는 것은 재독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근대라는 여명의 시작은 일본 식민지의 암흑으로 인한 혼란기로 점철되었지만 우리 생활의 큰 변혁을 가져 온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일제 하로서 조선의 전통이 식민사관과 식민주의에 의하여 부정당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적인 문화 자체가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 대두된 개선론이 정당하였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883년 朝鮮, 朝獨 수호조약 이래로 계속된 조선과 서구와의 조약 체결은 서구의 외교 업무와 주거를 위한 서구식 건축을 짓게 하므로써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어 식민 정책에 따른 일본식 주택의 도입은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을 안겨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교수

주었다. 따라서 앞선 선진 문물의 물질적 발전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뒤쳐진 우리의 생활 문화를 뒤돌아 보고 분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당시의 계몽 운동 가운데는 의식적 개혁과 아울러 실제적인 생활 개선을 주장한 것이 많았으며 이광수도 생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글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물론 이광수는 전문적인 건축가나 학문적으로 주택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박길용과 같은 건축 전문가들에 의한 본격적인 주택 개량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1930년대 이전부터 생활개선을 주장하였다는 점이 돋보이고 따라서 그의 선각적 위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특히 지식인들의 사상적 영향이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힘을 볼 때 그 지식인인 한 사람으로서 생활개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이광수가 서구나 일본의 주거 형태를 통하여 받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였으며 특히 주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화두로 삼았는가를 고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 2. 연구자료

이광수의 글은 그 사상 내용에 따른 시대적 분류를 1기(1920년 이전), 2기(1921-1930), 3기(1931년 이후)로 구분<sup>1)</sup>하기도 하지만 본 고에서는 편의상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연구 대상은 시와 소설 등을 제외한 작품 중에서 이광수의 직접적 생각이 표현된 논문, 수필, 時話, 雜纂 중에서 주생활 개선에 관련된 글을 선정<표 1>하였으며 論文 6편, 時話 3편, 隨筆 5편으로 총 14편이 선정되었다. 기록된 글은 三中堂 간행의 [이광수전집 1권-20권] 1962년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고에서는 친일 행적으로 문제가 된 [민족개조론]에서 논한 주생활 개선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1922년 이전에 발표된 [신생활론]의 내용들과 그 맥락이 일치하므로 그가 인식한 생활 개선의 흐름이 [민족개조론]에서 갑자기 표면한

표 1. 생활 개선과 관련된 이광수의 저작물

유형	제목	발표지	발표년도 및 기간
논문	자녀중심론	청춘15호	1918
	혼인에대한의견	學之光12호	1917
	교육가諸氏에게	매일신보	1916.11.26-12.13
	농촌개발	매일신보	1916.11.26-1917.2.18
	민족개조론	開闢	1922
時話	新生活論	매일신보	1918.9.6-10.19
	생활개선의급무	三千里	1940
	卒業生諸君에게 드리는*告	學之光13호	1917
수필	農村父老를代하여 在學하는 자녀에게	開闢	1924
	창조의생활	조선일보	1939.
수필	가정의美化	조선일보	1933.10.10일자
	은돌	조선일보	1934.1.9일자
	생활정화론	조선일보	1935.6.22-23
	생활의정신화합리화	조선일보	1935.9.1-15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II. 이광수와 시대적 배경

이광수는 1892년에 출생하여 1950년 납북된 것을 끝으로 그의 일생은 혼란과 격변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닮아 있다. 이미 1870년대 초반에 태동한 개화사상과 아울러 개항과 더불어 나타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은 이광수의 개인적 생활 환경 못지 않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질적인 외국의 주택 건축 도입을 보면 이미 1884년 인천에 지어진 세창양행을 필두로 구미 주택이 속속들이 지어졌고 화교들의 중국식 주택과 일본식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광수가 남달리 생활의식 및 가정생활 개선에 관심을 지니게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조류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전개된 민중 운동이나 의식개혁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898년에 발표된 제국신문 내용은 부녀자를 비롯한 민중 계몽과 개화 및 의식구조의 변혁을 엿볼 수 있는 것<sup>2)</sup>이었고 1922년 생활개선을 위한 사회교화회의 발족, 1923년

부터 시작된 신생활 운동에 대한 논의, 그리고 1927년에는 여러 여성 단체를 통합 발전한 강력한 여성 계몽적 자립운동을 표방한 權友會의 조직<sup>3)</sup>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광수가 관여한 동학 이외의 각종 민중 운동의 부분적 사상들이 간접적으로는 생활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총체적 상황들은 이광수가 적어도 자신의 생활 개선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III. 이광수의 가정 생활 개선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이광수는 일찍이 14세 무렵부터 개화사상에 눈을 떠 救國의 용지를 품고 처음 渡日 유학을 하게 되며 이 후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24세에 와세다대학까지 입학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이미 메이지 유신 이래 근대화 축진의 영향에 있었던 일본의 여러 생활 모습과 아울러 이미 일본에 들어 온 서구의 여러 가지 생활 문화 자료에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이광수의 가정 생활 개선에 대한 인식 내용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생활 의식에 대한 개선 들째, 가족 관계의 개선 세째, 의례 생활 및 기타의 개선이다. 이러한 가정 생활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생활 의식의 개선

이광수는 생활 의식을 논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 정리를 먼저 제시하였다. [教育家諸氏에게]서 기술한 생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生物의 行動의 全體는 卽 生活이니, 生物 즉 生活이요, 生活 즉, 生物이라. 고로 人生 즉 生活이요, 生活 즉 人生이니 生活을 離하여 何處에 更히 人生이 有하리요, 國家도 生活을 爲하여 在하고 文明도 生活을 爲하여 在하고 社會의 萬般現像이 生活을 爲하여 生活中心으로 하여 寧히 生活내에 生하는도다 ……; 生活이란 自己一身의 健康과

幸福을 維持하고 發展하며 更히 自己의 未來의 子孫을 爲하여 知識과 體力과 精神과 財産을 遺하는 萬般行動의 總和를 爲함이라 ……; 生活의 內容은 卽 健康과 幸福과 繁殖이니 此 三者를 獲得하기 爲하여 人類의 萬般活動이 生하는 것이라 健康을 爲하여는 衣와 食과 住와 安息과 醫藥과 運動이 必要하니 此는 三要素中에 最大한 者라.”<sup>4)</sup>

즉,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전제이면서 누구나 이를 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활 개념의 기본적인 정의와 민주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있어 현대의 생활과학의 학문적 입장과 아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新生活論]에서는

“生活이라는 語의 [生]자, [活]자가 이미 示함과 같이 生活은 岩石모양으로 固定한 것이 아니요 生物모양으로 流動하고 變遷하는 것이외다 …… 우리의 最近 三十年事를 생각하더라도 白衣를 벗고 黑衣를 입게 되고 상투를 베고 수염을 깎으며 四書五經을 버리고 物理, 化學을 배우며 兩班이 장사를 하고 婦人이 中門을 나서게 되었으니 實로 隔世의 感이 있으리만한 大變化외다 …… 生活은 流動합니다. 變化합니다……”<sup>5)</sup>

라고 하여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생활이 변할 수 있음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의식적 변화와 무의식적 변화로 구분하여 논하고 과거에는 비판 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시대에 따른 비판 의식이 요구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批判 속에서 새로 潑潑한 精神的活動이 생기고 熱烈한 進化의 欲求가 생기고 新生活의 理想과 方式이 明瞭하게 眼前에 떠 나올 것이외다.”<sup>6)</sup>

또한

“이렇게 時代와 處所를 따라 生活의 方式, 卽 道德, 習慣, 制度 등이 다르다 하면 朝鮮 아닌 中國의 게다가 現代도 아니요, 3천년전인 周末의 形便에 적당하던 儒敎가 朝鮮에 合할 리가 없습니다.”<sup>7)</sup>

“富는 生活의 根本要件이어늘 儒敎는 吾族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 諸般 自然科學과 商工業의 敎育을 勸獎하여 …… 科學家의 社會의 地位를 昇進하여 그네에게야말로 眞正한 兩班의

稱號를 드려야 하겠습니다.”<sup>8)</sup>

하여 유교 사상의 장기적 영향이 낳은 사회 발전의 저해 및 생활에의 폐해 등을 여러 면에서 지적하였으며 자연과학과 상공업의 중요성을 갈파하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생활 개혁에 따르는 사고의 전환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시급한 생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生活改善은 朝鮮人을 爲하여서는 焦眉의 緊急 事입니다 …… 舊의 불합리를 버리고 합리의 新을 취하는 것입니다 …… 畏友 吳億氏는 일찌부터 이 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지시어 特히 飲食物의 營養的改善에 많은 研究를 쌓으시다가 이제 奮然히 生活改善運動의 陳頭에 나서시니 氏의 近著[生活進路]와 圖解는 그 第一聲입니다.”<sup>9)</sup>

이광수의 이러한 구습타파의 반유교적 견해는 당시의 개화파 지식인들의 사상과 그 맥을 같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진보적 인식은 인간 생활의 참된 발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 제도의 변화 요구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었다.

## 2. 가족 관계의 개선

이광수는 전통 사회에서 무엇보다 효에 집착한 결과 부모 중심의 편파적인 가족생활이 되는 점을 “子女中心論”에서 父祖中心의 舊朝鮮이라는 단락 하에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朝鮮서는 孝가 最上의 道德이었었고 孝의 內容은 子女된 者가 父母의 志를 承順함이었었다. 父母가 生存하는 동안에는 子女에게는 아무 自由가 없고 마치 專制君主下의 國民과 같이 父母의 任意대로 處理할 奴隸나 家畜과 다름이 없었다. 父母가 生存하는 동안뿐더러 死後에도 3년의 居喪이라는 嚴法이 있고 그 후에는 奉祭祀라는 大義務가 있어서 子女의 時間과 精力과 金錢을 浪費하며 活動의 自由를 檢束함이 莫甚하였다. 그러므로 孝子가 되려는 子女는 一生에 父祖를 위하여 自己를 犧牲하는 이외에 아무일도 할 餘裕가 없었다.”<sup>10)</sup>

이광수는 자기가 “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 예에 맹속된 가족 관계를 비판한 것이며 유교 그 자체보다 유교라는 名義와 권위아래 조선

사상에 끼친 영향을 논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유교에 속한 것이나 조선 유학자의 특유한, 혹은 그릇된 해석에서 나온 것도 있으며 이에 대한 편견이나 敵愾心을 지닌 것은 아니다.”<sup>11)</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부모 자녀관계의 지나친 유교적 가족 제도의 중속 구조에 얽매인 데서 오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피력한 것이다.

자녀에 대한 생각을 보면

“子女는 自己便으로 보면 獨立한 個體니, …… 爲先 子女에게 獨立한 自由로운 個性을 주어라 …… 心地가 그릇되었다 함은 子女를 父母 自己의 所有物로 알아서 子女를 教育하거나 말거나 自己네의 自由라고 생각하여 같이 子女를 爲한다 하더라도 子女自身을 위함이 아니요 父母 自己의 目前의 재미라든지 老後의 安樂이라든지 또는 死後의 奉祀를 위하여 함이니 이리 하더라도 그 結果는 같다 하더라도 그 精神은 確實히 잘못된 것이다 …… ”<sup>12)</sup>

라고 하여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하는 올바른 부모 자녀 관계의 설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논리에 대한 근거로 같은 글 “자녀중심론”에서 서구의 사회사 변동의 예에 근거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들었다. 따라서 이광수는 무엇보다 자녀의 올바른 교육은 사회적 장래를 위한 2세대의 교육으로써 중시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모나 처의 역할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사람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남녀 교육의 평등함을 제시하였다.<sup>13)</sup>

## 3. 의례생활 및 기타

이광수는 의례 중 무엇보다도 조혼에 대한 관습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혼인의 조건으로 양인의 건강, 정신력, 생리적 정신적인 충분한 발육, 경제 능력, 당사 상호간의 연애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특히 연애를 강조하여 애정과 무관하게 혼인하는 전래의 관습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하였다.<sup>14)</sup> 또한 형식주의적 관습의 폐단을 지적하

였다.

“1年동안 [아이고 아이고]의 凶音으로 所謂 罪人の 懲役生活을 하고, 그 後에야 적이 自由를 얻지마는 벌써 人生의 黃金時代는 다가고 말고 이 밖에도 冠婚喪祭에 理由도 意味도 알 수 없는 虛禮를 爲하여 ……多大한 金錢을 浪費하고……”<sup>15)</sup>

라고 하여 상례에 따른 시간적 생활 소모를 지적하고 기타 의례의 실용적 간소화를 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같은 글에서 이광수는 사회적 주체자로서의 일반 평민의 가치와 남존여비를 타파해야 한다는 평등적 계급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사보다 공과 신의를 중시 여기고 사회 봉사에 대한 것을 생명처럼 여길 것을 강조하였으며 수입품 사용을 자제하고 근검 저축을 통하여 생활의 경제적 자립을 논하였고 1종 이상의 전문 학술이나 기예를 배워 반드시 1종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것도 역설하였다. 즉 그는 인간의 타고난 본래의 자연적 조건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와 아울러 자본주의적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 능동적 태도를 중히 하고 있었다.

#### IV. 주생활 개선에 대한 인식

이광수가 주거생활에 대한 개선을 제시한다는 일이 당시 상황으로서 그리 쉬웠던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작업은 당시의 대목들에게 주어진 전문적인 일이었을 뿐 만 아니라 목재와 흙이라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마루와 온돌이라는 오랜 세월 표준화된 공간 구성의 관점에서 다른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큰 변혁을 의미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구의 건축과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건축학자가 채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은 주택 공간의 직접적인 분석과 제시보다는 생활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광수는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의 상해에도 거주 하였던 일. 그리고 영문판 서적을 탐독할 수 있었던 그의 경험과 능력은 각국의 문화적 안목을

높임과 동시에 주거생활에서도 나라끼리의 비교 인식이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증거로 이광수는 대체적으로 생활 개선에 대한 계몽 의식을 선진 외국의 문물을 통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농촌개발]에 나온 다음의 기록은 선진 외국 풍물을 통해 본 그네들의 물질적 발전에 대한 부러움과 아울러 우리나라 주거 생활의 향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이날에 映寫한 그림은 大概 文明人の 生活이요 . 鬱蒼한 森林, 整齊한 田畝와 灌溉, 堤防, 美國서 蒸氣機關으로 耕作하는 樣, 牧畜의 實景, 村落의 美觀, 小學校의 實業, 英美의 華麗繁華한 都會와 養蠶·紡績의 安壯한 寫景을 보이고 陸軍과 軍艦과 港口에 林立한 船舶을 보이고, 最後에 이 村中の 將來의 想像畫를 보였소. 그 번쩍한 家屋과 번듯한 道路며 後園의 果樹와 學校와 會館에 遊樂하는 樣과 洞民이 富饒하게 즐겁게 지내는 樣을 보였소.”<sup>16)</sup>

“이것은 英國이라는 나라의 村이요. 이 집들 보시오. 우리 村中 집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農家요. 우리도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sup>17)</sup>

또한 같은 글에서 삼림의 과수 종류를 비롯하여 도로, 축사 관리, 소득 방식 등 생업에 대한 실용성과 합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막연한 동경이나 모방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한국인들의 주거 환경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였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이러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무엇보다도 생활의 질적 수준을 하루 빨리 향상시키고자 하는 염원의 뜻이 담겨져 있다. 또한 미국 여성과 혼인한 김주항(金周恒)의 집을 방문 기록한 [창조의 생활]<sup>18)</sup>을 보면 아주 세심하게 주생활을 관찰한 이광수의 새로움에 대한 열정이 엿보인다. 그는 김주항의 부인이 널조각으로 만든 부엌 찬장이며 밥 짓는 열과 빵 굽는 열을 이용한 물 데우기 장치의 고안이며 지하실 야채 저장공간에 달아 놓은 한난계 등을 꼼꼼이 관찰하면서 “좁은 부엌이언마는 모든 스페이스를 경제적으로 써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기술하였다.

다음은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에 대한 인식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고찰하였다.

### 1. 주생활의 정체성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선진 문물의 도입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광수는 근대적 생활의 도입에 따른 혼란함을 지적하고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생활의 정체성을 찾을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農漁山村의 生活은 原始的이요, 都市生活은 舊式生活. 新式生活의 隣接 二重混合의 뒤범벅이다 …… 住宅·衣服·禮節 모두 다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게 뒤범벅이다. 여기서 우리는 精神上으로 統一을 잃고 經濟上으로 浪費를 하게 된다 ……그러면 生活方式 整理統一의 原理를 삼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合理化의 一語으로 足할 것이나 ……”<sup>19)</sup>

라고 하여 그 정체성의 기준을 무엇보다 ‘합리화’에서 찾을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朝鮮의 市街와 村落과 家屋에 不淨의 심별인 무너짐과 냄새와 파리와 不秩序가 없어진다 하면 이것이 곧 天堂이요, …… 우리는 村落을 지날 때 어떤 집의 外貌를 보고 다만 그 집 主人의 貧富를 판단할 뿐 아니라 그 勤怠를 판단할 뿐 아니라 그의 趣味·信仰等 性格과 精神生活의 程度를 判斷할 수 있는 것이니 [生活은 가장 참된 藝術이라]함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sup>20)</sup>

라고 하여 우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옥이나 촌락의 모습을 거주자의 인격적 측면과 결부시킨 것은 주거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관리에 대한 거주자의 책임의식을 지적 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이광수가 주거가 지닌 물리적 기능 이외에도 정신적 기능을 잘 파악한 것으로 집에 대한 외부인의 이미지에 거주자의 정체적 표현이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었다.

### 2. 주거 설비의 개선

#### ① 위생적 주거환경의 개선

위생 문제는 채광 및 통풍과 더불어 개화기

때부터 대두되었다. 이미 1876년 4월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온 김기수는 일본인들의 결벽증 가까운 청결적 생활 관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서에 올렸는데<sup>21)</sup>이에 더하여 한창 근대화가 진행중인 일본에 여러차례 유학을 한 이광수도 무엇보다 일본인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졌던 위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족개조론”에서

“家屋, 衣食, 道路 등의 清潔等, 衛生의 法則에 合致하는 生活과 一定한 運動으로 健康한 體格의 所有한 者가 되게 ……”<sup>22)</sup>

라고 하여 위생환경과 건강함의 관계를 역설하였고, 또

“金大監은 이 村에 一富요 …… 집도 이 村中에 第一 크고 華麗하오 …… 그의 집 房안과 庭除는 늘 不潔하오 …… 병의 대부분은 不潔한데서 납니다 …… 더구나 부엌이 不潔한 것은 病을 養成함이나 다름 없습니다.”<sup>23)</sup>

“居處하면 집과 房과 부엌과 뒷간과 마당과 門前等を 包含하는 것이다. 居處의 第一要件이 衛生의 口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sup>24)</sup>

“淨潔은 居處道德의 第一條여니와 가장 淨潔을 要하는 곳은 가장 不潔하기 쉬운 곳이니 이것은 부엌과 마루 밑과 뒷간과 수춧구멍이다.”<sup>25)</sup>

라고 하여 주거의 위생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무엇보다 부엌의 위생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엌 문제는 당시에 많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김유방도 조선의 가옥 중 부엌이 가장 많은 결함을 가진 것으로 지적하였다<sup>26)</sup>. 이광수는 또한 신체적 건강을 위한 목욕을 권장하였는데 특히 일본인들의 목욕 관습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목욕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沐浴後에 會場은 酒餅을 供饋하고 沐浴과 健康과의 關係가 密接함을 更設하고 明日에는 힘써 植木하기를 勸獎하였소.”<sup>27)</sup>

“日本人이 …… 最히 顯著한 것은 沐浴의 愛好. 都市에는 每百戶 乃至 二百戶에 만드시 一戶 沐浴湯이 有하여 人民들은 平均 隔日 入浴하여 或者 每朝 入浴하는 자도 有하고 私家에 中流以上生活을 하는 者는 만드시 家內에 一箇 浴室을 設하여

…… 실로 入浴은 彼等の 日常行事의 不可缺할 事이라.”<sup>28)</sup>

“요강의 使用은 絶對로 廢할 것 중에 하나요. 浴室의 附設은 絶對로 있을 것 中에 하나다.”<sup>29)</sup>

“그날 저녁에 會長은 家側에 新設한 沐浴湯에서 今日 家屋을 掃除한 靑年들이 入浴하였소.”<sup>30)</sup>

이렇듯이 이광수는 신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욕실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농촌의 경우 마을 사람들의 집단 위생을 생각한 공동 욕탕의 설치 방법까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 욕실 및 변소 등을 비롯하여 햇빛과 통풍문제, 주택개량에 대한 논의는 1923년 조선일보의 신생활운동의 특집(1월1일자)에 이어 계속적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의 공간 위생 문제는 주생활 중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하기를 원했던 공통적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단독 가정용의 급배수 설비의 보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31)</sup>

#### ②온돌

온돌에 대한 비판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이는 온돌 구조 자체의 비평보다는 온돌에 익숙해진 주생활 관습의 나태함에서 대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광수의 온돌 비평 역시 좌식 생활의 비활동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다음의 내용은 온돌을 부정하는 것이기 보다는 거주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산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입식 생활의 부분적 도입 및 온돌 관리에 드는 연료의 경제적 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溫突은 누우면 덥고 앉으면 춥고 煖爐 피운 방에는 누우면 춥고 앉아야 덥다. 溫突은 安息의 이요 煖爐는 活動的이다. 朝鮮에 와 있는 日本 사람들은 寢室 하나만을 溫突로 한다. 이것이 도리어 合理的이다. 溫突에 맛을 붙이면 겨울에는 밖에 나오기를 무서워 한다. 老人에게 合當하다. 젊은 活動的인 人物은 잘 때 以外에는 斷然히 溫突에 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家屋制度를 改良할 必要가 있다.”<sup>32)</sup>

온돌에 대하여는 이 후에도 김유방의 온돌 예찬, 홍석하의 부정적 태도, 그리고 온돌의 장점과 미비점의 개선에 대한 여러 건축학자들의 논란

의 대상이 되었다.<sup>33)</sup>

### 3. 주거의 평면 구성과 동선

#### ① 실의 기능적 분화

조선조 주거의 공간 배치는 당시 들어 온 서구식 주공간의 집약적이고 기능적 분화 형태와 대조적 차이를 보이므로써 많은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양식 주거의 직접적 이입은 1880년대에 시작하여 1890년 이후 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884년 인천 세창양행 사택을 비롯하여 1909년 인천 오례당 저택까지 10여채의 양옥이 지어졌다. 세창양행 사택은 벽돌조 2층으로써 사무실, 침실, 오락실, 식당, 부엌, 화장실, 창고 등이 복도로 연결된 이탈리아 양식의 집이었다. 그 외의 집들도 대부분 벽돌조나 석조였으며 한 몸체의 집중식 단일 평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양옥은 외관에 사용된 재료나 형태는 물론 실내 공간의 구성이 조선조 한옥과 매우 다른 점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당시의 개화파 지식인들과 상류 계층에게는 이러한 기능적 주거 공간이 매우 긍정적이었을 것이며 그 증거는 이 후 1930년대부터 상류 계층에서 자신들의 주거로 벽돌조의 양옥을 점차 건립한 점<sup>34)</sup>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광수도 공간의 용도별 분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爲先 우리 首都 서울. 번적번적한 大路邊의 큰 建物에 朝鮮 사람의 것이 몇이나 됩니까 …… 우리들이 사는 家屋은 …… 食堂, 寢室, 常居室의 區別조차없고 ……”<sup>35)</sup>하여 주거 공간이 용도에 맞게 별도로 계획된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②공간 구조와 동선

이광수는 전통 주거의 공간 배치 특성에 따른 채광 및 동선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朝鮮家屋에 (西北은 除外하고) 根本的인 缺點은 부엌을 正面으로 두기 때문에 안방이 光線을 못받게 되는 것과 便所를 輕視하는 것과 行廊의 位置로 하여 門前에 不潔한 것과 안채·아래채·사랑채等의 連絡이 없는 것 등이다. 家屋內의

各部分의 連絡을 緊密히 便利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能率에 關係될 뿐더러 寢室과 便所가 屋內로 連絡이 안되는 것은 요강의 使用과 雨期와 多寒期에 保健上에도 關係가 있는 것이다.”<sup>36)</sup>

“요강의 使用은 絶對로 廢할 것 중에 하나요.”<sup>37)</sup>

즉, 부엌과 안방의 배치 관계상 가장 중요한 안방의 채광이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각 채로 분리된 조선조 주택의 배치가 동선 체계상으로는 비효율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침실 가까이 변소가 없으므로 인하여 요구되는 요강 사용의 보편적인 면을 지적한 점도 흥미로운데 이는 농촌의 비료 이용에 의한 변소의 분리와는 관계없는 도시 주거의 위생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굵은 기둥, 굵은 서까래가 무슨 所用이며 부연이니 추녀니 하는 것은 없고도 견딜 것이요. 두벌대 세벌대도 없고도 견딜 것이다. 하물며 여러 간 광과 줄행랑과 大門·中門 같은 것은 時代錯誤의 存在요, 부엌을 넓게 하는 것은 能率을 減損할 뿐인즉 이런 것을 다 節約하여 便所·浴室·花壇 등에 쓸 것이다. 壁을 二重으로 하는 것은 朝鮮의 氣候에 비기어서 必要하고 두꺼비집을 겹으로 바르는 것과 甲窓을 하는 것은 保溫上 도리어 經濟的이다.”<sup>38)</sup>

라고 하였는데 굵은 기둥이나 서까래, 부연, 줄행랑, 대문과 중문 등은 봉건적 신분계급의 차이를 드러내는 상류가옥의 특징으로 외적인 측면보다는 시대에 맞는 가옥의 구성을 제창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중 벽을 주장하여 집의 열효율을 높힐 수 있다는 안목은 당시 상황의 비전문가적 입장으로는 주거에 대한 깊은 인식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두꺼비집이나 갑창에 대한 보완 아이디어도 겨울의 방한적 공간 환경을 위한 의미있는 지적이었다.

#### 4. 기타

이광수는 주거 생활의 미적 배려에도 관심을 가졌다. 일본 주택을 보고

“今日의 朝鮮의 家庭처럼 美를 돌아 보지 아니한 家庭은 없을 것이다 …… 日本人의 집을 보면

[도꼬노마](床の間)의 書畫簇자와 [이께바나](生化) 오까모노 등을 놓은 房 한 間은 집이라고 생긴데는 다 있는 것이어니와 …… 便所에 꽃을 꽂는 이도 있다.”<sup>39)</sup>

라고 하여 주공간의 심미적 장식이 주는 가치에도 관심을 두었다.

“우리들이 사는 家屋은 어떠합니까. 낮고 더럽고 아무 建築의 技巧도 裝飾도 없고 …… ”<sup>40)</sup>

이광수의 이 글 역시 매우 자조적인 면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의 주생활 수준이 매우 안타까움과 아울러 아름다운 환경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고려를 창조적 정신으로 할 것을 주장한 다음의 기술은 이광수의 개선론이 단지 맹목적인 서구의 지향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家屋을 新築할 때에는 舊習과 世俗에서 超脫하여 마땅히 創造的으로 할 것이요 이미 있는 집을 사거든 그것을 잘 이용하도록 美化하도록 衛生化하도록 研究할 것이다.”<sup>41)</sup>

즉, 신축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을 계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주택은 생활에 맞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 환경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주생활에 대한 이광수의 전반적인 의식은 삶의 질적 향상을 근간으로 하는 기능적 실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당시 무엇보다도 많이 주장된 주거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도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會員들은 熱心으로 마당을 쓸고 家具의 먼지를 떨며 婦人이 수건을 쓰고 부엌 掃除를 행하오. 頑固한 父老들도 이렇게 家內를 清潔케 하는 데는 大反對는 아니하였나 보오. 會長은 만나는 대로 會員에 致賀를 하고 自己도 집에 돌아 와 몸소 家族을 데리고 大掃除를 行하며 山에 가서 淨潔한 黃土를 파다가 부엌과 庭內에 폼소. 다른 會員들도 그와 같이 庭園과 부엌에 黃土를 폼소. 이리하여 四,五十戶는 쫌혀 새로운 집이 되었소.”<sup>42)</sup>

즉, 부지런히 청소를 하여 주거 공간을 정결케 하고 또한 부엌과 뜰과 같은 흙바닥은 깨끗한



혹을 이용한 소규모 작업을 통하여 집이 아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주거 관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에 대한 의식은 새로움에 대한 창조적 반영의 정신이 많았다. 그가 의미한 창조란 창조적 기분을 얻는 것이며 창조적 기분이란 고역감 없는 고역, 즉 기쁨의 고역을 일컬음이라고 하였고 만인의 노역이 다 장난이 되는 날이 천국이라고까지 언급하였다<sup>43)</sup>. 이광수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안들은 이 후 박길용이나 박동진, 김윤기, 등의 건축가들이 새로운 주거평면으로서 서구나 일식주거를 참고하여 제시한 새로운 주택<sup>44)</sup>을 선보이는데에 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여하는데 일조를 하였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을 것이다.

## V. 결 론

이광수는 생활과 인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면서 시대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근간으로 하여 가정 생활에서 우선 생활의식, 가족관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동안 이루어져 온 조선 조 의례가 과도한 형식으로 인해 많은 폐단을 야기한다고 보고 상례, 제례, 혼례 등의 비합리적인 점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생활 개선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함축하여 볼 때 첫째, 근대의 혼란스런 분위기에서의 주생활 정체성의 확립 둘째, 주거의 청결과 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목욕실의 설치 셋째, 공간 구조의 기능적 분화와 배치로 인한 동선의 개선 넷째, 미적 생활 환경의 조성 그리고 청결하고 적극적인 주거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광수의 이러한 계몽적 개선 의식은 대체로 근대화 중이었던 일본이나 서양 주거의 비교를 통해 본 합리성을 토대로 기능적 실용적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모방이나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전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 시대를 위한 창의적 주생활을 강조하는데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써 비전문

가적 지식인의 입장으로는 매우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주생활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랜 세월 잠식된 유교적 생활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개선 의식 중, 특히 자녀와 여성의 인격적 대우 및 교육을 많이 강조한 점, 형식적 의례의 타파와 애정있는 혼인 주장 등은 일반인들로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다. 특히 전통적 관습에 의해 형성된 오래 된 가옥 규범으로서의 조선조 주거 공간 양식에 대한 기존의 틀을 전면 부정하고 합리적인 틀로 재구성을 한 그의 생활 개선 인식은 매우 진보적이고 파격적이기까지 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아름다운 주거환경 설정을 위한 주거관리에 대한 태도의 인식 개선이었다. 건축적 지식이 부족한 이광수의 비전문적 한계점은 주택의 구조나 재료, 공간구성 등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계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서구 문명의 환상적인 물결 앞에서 오랜 세월 내재된 전통 주거의 정서적 측면을 간과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또한 기능적인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반인들의 생활 수준과 양식을 위한 구체적 분석 대안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이광수에게는 무리한 일일 것이다. 어쨌든 당시의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에 대한 이러한 인식 내지 여러 인쇄 매체를 통한 그의 강력한 발표 의지는 이 후 전문적인 건축가들이 새로운 주거 도면을 발표하고 주생활 혁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일반 민중들의 생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주생활의 변화 고찰에 한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 주

- 1) 삼중당간(1962), 이광수전집1권-20권
- 2) 李炫熙(1981), 한국근대사와 민중의식, 탐구당, 42-46쪽 참조.
- 3) 이현희, 앞책, 124쪽

- 4) “교육가제씨에게”, 17권, 73-74쪽
- 5) “신생활론”, 17권, 516-517쪽
- 6) “신생활론”, 17권, 521쪽
- 7) “신생활론.”, 17권, 522쪽
- 8) “신생활론”, 17권, 525쪽
- 9) “생활개선의 급무”, 17권 472쪽
- 10) “자녀중심론”, 17권, 40
- 11) “신생활론”, 17권, 543쪽
- 12) “자녀중심론”, 17권, 42-45쪽
- 13) “혼인에 대한 의견”, 17권, 53-61
- 14) “婚姻에 대한 意見”, 17권, 55-56쪽
- 15) “新生活論”, 17권, 526쪽
- 16) “농촌계발”, 17권, 94쪽
- 17) “농촌계발”, 17권, 92쪽
- 18) “創造의 生活”, 14권, 340-343쪽
- 19) “생활의 정신화 합리화”, 13권, 527쪽
- 20) “생활정화론”, 13권, 497쪽
- 21) 김윤식, 앞책, 171-2쪽
- 22) “민족개조론”, 17권, 201-202쪽
- 23) “농촌계발”, 17권, 87-99쪽
- 24) “생활정화론”, 13권, 529쪽
- 25) “생활정화론”, 13권, 530쪽
- 26) 김유방(1923), “문화생활과 주택”, 개벽, 2월, 57쪽
- 27) “농촌계발”, 17권, 102쪽
- 28) “東京雜信”, 17권, 489쪽
- 29) “생활정화론”, 13권, 530쪽
- 30) “청소 등 집관리”, 17권, 102쪽
- 31) “민족개조론”, 17권, 222쪽
- 32) “은돌”, 13권, 407쪽
- 33) 임창복(1991), “일제시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거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37호, 135-146쪽
- 34) 임창복(1991), 앞글
- 35) “민족개조론”, 17권, 222쪽
- 36) “생활정화론”, 13권, 529-530쪽
- 37) “생활정화론”, 13, 530쪽
- 38) “생활정화론”, 13권, 530쪽
- 39) “가정의 미화”, 13권, 387쪽
- 40) “민족개조론.”, 17권, 222쪽
- 41) “생활정화론.”, 13권, 530쪽
- 42) “청소 및 집관리”, 17권, 102쪽
- 43) “創造의 生活.”, 14권, 340-343쪽
- 44) 임창복, 앞글

### 참고문헌

1. 김광억(1998), “일제시기 토착 지식인의 민족문화 인식의 틀”, 비교문화연구4호, 서울대비교문화연구소, 79-120쪽
2. 구인환(1983), 이광수소설연구, 삼영사, 10쪽
3. 김순일(1982),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건축106호, 대한건축학회, 27-31쪽

(接受 : 1999. 9. 8)